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

유창호(상명대학교)*
장석진(상명대학교)**
조용비(상명대학교)***
전지인(상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가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모의 방임·학대와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 탑재된 6차년도(2015)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 2,05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연구 방향을 설정하여 자료를 찾고 분석하였다.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방임 또는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은 높고 또래 관계는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보다 방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방임·학대와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방임·학대와 관련된 부정적 양육 태도에 대한 교육 및 청소년의 또래 관계 개선 및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부모 방임, 부모 학대, 공격성, 또래 관계, 청소년

I. 서론

청소년기는 전반적으로 발달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육체적인 변화와 더

* 제1저자: 상명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일반연구원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schang@smu.ac.kr)

*** 공동저자: 상명대학교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 객원상담원

**** 공동저자: 상명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인턴상담원

불어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의지했던 타인인 부모에게서 또래로 그 대상이 옮겨가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 건강한 또래 관계의 형성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배우는 발판이 되고 사회적으로 개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김영미, 2000; 임정하, 정옥분, 199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2014년까지는 상담 주호소 문제로 학업/진로 영역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2015년도 이후부터 대인관계 호소 비율이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미루어보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대인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에 우선으로 초점을 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래란 연령대가 비슷하여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지내는 대상으로, 또래 관계는 또래를 구성하고 있는 또래들이 물리적,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그들의 집단 내에서 수용 받으려는 지속적인 역동 관계라고 할 수 있다(김진숙, 2013; 송길연, 2001; 장춘옥, 2010; 최영미, 2012). 또한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양하고 빠른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또래와 동질감을 느끼게 되며, 가족보다 또래 관계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래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부모에서 또래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또래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원천으로 삼게 된다(유민정, 2012; 홍소정, 2005; Hartup, 1992).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의 건강한 또래 관계는 자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식, 이슬잎, 최재필, 2016; 최승은, 2006; Isakson & Jarvis, 1999). 또한,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인지, 정서, 행동적 지지자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사회적 책임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이동미, 2015; Wentzel, 1994). 그러나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거나 경험하게 될 경우, 외로움을 겪거나 학업성적이 낮아지며 비행, 범죄, 사회불안 등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을 하게 된다(김윤경, 이옥경, 2001;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정정화, 2008; Parker & Asher, 198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또래 관계는 청소년이 타인과 맺는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적응, 그리고 개인 내적 요인의 건강한 발달을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배재현, 최보가, 2001; 서주현, 유안진, 2001; 이영선, 이경남, 2004). 따라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에서의 건강한 상호작용, 또래 사이의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은 크게 심리 정서적

인 개인 내적 변인과 가족, 부모와 같은 외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다(안수영, 이형실, 2009).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기효능감,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등이 의미 있게 보고되었다(송유민, 2016; 이충권, 양혜린, 2017; 장인실, 2012; 한현아, 도현심, 2008). 이 중에서도 공격성 변인은 최근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의 부적응적인 또래 관계 양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보다 주목받고 있다(김성아, 최진아, 2011; 심희옥, 2005).

공격성이란 단순히 타인을 해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등의 관찰 가능한 특성이나 행동으로 정의되거나(Parke & Slaby, 1993), 타인 또는 자신에게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Hartup, 1974). Rotter(1954)에 의하면 공격성은 Freud가 주장하는 생물학적 본능이나 욕구좌절에 의한 충동보다는 오히려 역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Bandura(1959), Kohutt(1977)은 유아관찰 연구를 통해 공격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받아 학습되는 행동임을 밝혔다. 이는 공격성이 학습 또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렇게 형성된 공격성은 외부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또래 관계와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의 거부 경험이 높고 자신의 또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격성이 낮을수록 또래에게 수용 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미, 2000; 심희옥, 2005;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또한, 공격적인 아동들은 관계 안에서 가해 학생이 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는 학년이 올라가고 다른 학급의 학생들을 만나도 여전히 가해 학생으로 남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은주, 2003). 이처럼 공격적 행동은 또래 관계 안에서 다른 아동을 멀리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 유형의 습득을 어렵게 만들어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성격 형성 및 인간관계에서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김성아, 2011; 김외열, 1988; 유안진 등, 2002; 정혜순, 2010). 그러므로 공격성은 청소년기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임을 시사하며,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일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Olweus, 1984).

한편,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 행동, 부부갈등 등이 있다. 부모는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가장 첫 상대로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허용적이거나 민주적일 경우, 그리고 부모의 보호가 적절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적을 때 타인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맺게 되어 또래와도 성공적인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유윤아, 2005; 정미경, 2002; 전정옥, 2007; 조샘이, 2001; 이숙, 이춘아, 1998; Katz, Wilson & Gottman, 1989).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이며, 여기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은 청소년의 또래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안혜진,

2017). 이와 달리, 부모의 방임·학대와 같은 역기능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 적응, 또래 관계, 대인관계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 전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경하, 2017; 우수정, 2013; 이충권, 양혜린, 2015).

기존의 방임 및 학대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방임과 학대를 구분하고 연구하기보다는 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거나(박재연, 2010), 학대의 개념에 방임을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했다(김재철, 최지영, 2011; 박영준, 성효정, 2014). 가정 내 부모의 방임·학대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여 다양한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들로 발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 인격발달,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성인기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Anda, Felitti, Bremner, Walker, Whitfield, Perry, Dube, & Giles 2006; Styron & Janoff-Bulman, 1997). 실제로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자살시도, 비행, 약물남용, 우울 등으로 나타난다(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Kaplan, Asnis, Lipschitz, & Chorney, 1995; Putnam, 2003).

청소년의 방임·학대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wlby, 1958).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방임·학대경험을 겪은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또래 관계 및 또래애착의 질이 낮고,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재철, 최지영, 2011; 박은미, 1999;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또한, 부모에게 방임·학대를 당한 청소년은 학대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또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립, 소외를 경험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부모의 학대 정도가 만성적이고 심각할수록 또래 관계에 더욱 부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미, 1999; 정익중, 2008;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하지만 방임과 학대는 구분지어 살펴보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 방임은 자녀의 욕구에 관심이 없거나, 반응하지 않고, 잘 보살펴주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인 반면, 학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홍미, 김효진,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임과 학대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방임·학대 정도와 자녀의 공격성 정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감독, 부모와의 애착 관계 등이 있다(안지연, 2014).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이며,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고 부모의 감독이 부재할수록 아동들의 공격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됐다(김선숙, 2007; 임성택, 2002; 홍순혜, 2004). 실제로,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대인관계에 있어 공격성과 폭력성으로 인한 문제를 가질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우울에도 영향을 미쳐 내재화된 공격성을 많이 표출하게 된다(박덕숙,

2002; 안동현, 2000; 우희정, 2014). 부모의 방임 역시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한 아동과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밝혀 방임의 부정적 영향력을 강조하였다(박미경, 2000; Kent,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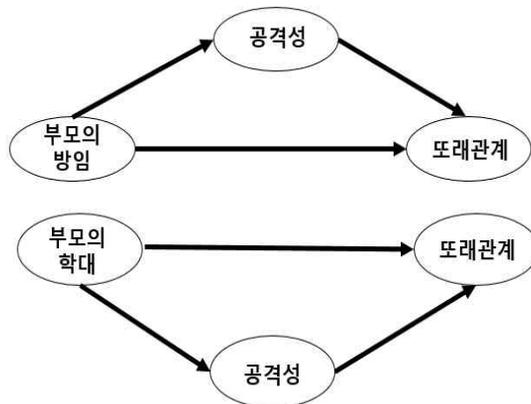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발달 과제인 건강한 또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공격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들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 대해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밝힌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 공격성, 또래 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부정적인 또래 관계에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공격성이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방법을 사전에 모색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적응도와 만족감을 상승시켜 성공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증진하고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공격성은 매개변수, 또래 관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연구 문제 1에서는 부모의 방임을 독립변수로, 연구 문제 2에서는 부모의 학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부모의 방임·학대, 공격성, 또래 관계는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의 방임과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매개 효과를 갖는가?
 연구 문제 3. 부모의 학대와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매개 효과를 갖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등학교 4학년의 6차년도(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경험한 부모의 방임·학대 경험이 공격성,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 자료는 2010년도에 1차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하여 2016년도까지 총 7년 동안 실시되는 종단조사로써,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통해 2,378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6차년도 자료(중학교 3학년)는 원표본 유지율이 86.7%로 총 2,061 사례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쌓아온 기본적인 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업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점진적인 사회관계의 확대에 적응해야 하며 진로까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그리고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스트레스가 어느 시기의 중학생들보다 심하며 변화된 환경과 심리 내적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들의 또래 관계 형성은 앞으로의 사회관계 형성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위한 조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학교 3학년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 조사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6차 초4패널 데이터 가운데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2,058명)'고 응답한 대상 중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중학교 3학년 데이터(2,057명)만 통계분석에 포함하였다.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은 <표1>과 같다.

첫째, 성별의 경우 남자가 1,088명(52.9%), 여자가 969명(47.1%)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인 경우가 651명(31.6%), 비수도권은 1,406명(68.4%)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연간 소득별로 살펴보면 4,600만 원 이상 6,1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570명(2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3,400만 원 이상

4,600만 원 미만 514명(24.9%), 3,400만 원 미만 486명(23.6%), 6,100만 원 미만 372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088(52.9)	학교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51(31.6)
	여자	969(47.1)		비수도권	1,406(68.4)
	전체	2,057(100)		전체	2,057(100)
현재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니고 있다	2,058(86.5)	가구 연간 소득	3,400만원 미만	486(23.6)
	학교를 그만두었다	3(0.2)		3,400 - 4,600만원 미만	514(24.9)
조사실패 여부	조사실패	317(13.3)	전체	4,600 - 6,100만원 미만	570(27.7)
	전체	2,377(100)		6,100만 원 이상	372(18.1)
				전체	2,022(100)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방임·학대), 매개변수(공격성), 종속변수(또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된 측정도구의 출처를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확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신뢰도분석 결과, 각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방임(0.726), 학대(0.844), 공격성(0.810), 또래 관계(0.851)로, 측정도구 모두 신뢰도계수(Cronbach α)값이 0.7 이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척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방임·학대 경험 척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사용한 청소년의 방임·학대 경험 척도는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으며, 방임 및 학대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4문항 총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학대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8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방임경험의 신뢰도 계수는 .726으로 나타났으며, 학대경험의 신뢰도 계수는 .844로 나타났다.

나. 공격성 척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공격성 척도는 조봉환·임경희(2003)가 개

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810로 나타났고, 자료 분석에서는 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다. 또래 관계 척도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 측정은 또래애착과 교우관계 2가지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래애착척도는 Ar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를 변안·수정한 김지연(1995), 황미경(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우관계 척도는 문선모(1997),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정화실, 1991에서 재인용) 중 교우관계 문항(5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851로 나타났고, 자료 분석 시 문항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다.

<표 2> 변수의 측정도구

구분	출처	문항 수	신뢰도	
독립 변수	부모의 방임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	4문항	0.726
	부모의 학대		4문항	
매개 변수	공격성	조봉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6문항	0.810
종속 변수	또래 애착	Ar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를 변안·수정한 김지연(1995), 황미경(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씩 총 9문항으로 구성	14문항	0.851
	교우 관계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 결측치 확인 및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 분석, 변수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한 분석도구로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분석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분석

기술통계분석 결과 첫째, 독립변수인 방임의 전체 평균은 1.805이고, 학대는 1.639였다. 둘째, 매개변수인 공격성의 평균은 1.93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또래 관계의 전체평균은 1.853이고, 하위변수로 구성된 의사소통, 신뢰, 소외, 교우관계는 각각 1.844, 1.772, 1.948, 1.850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방임·학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중간 수준이며, 공격성, 또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수준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3>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구분	항목	측정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분산
독립 변수	부모의 방임 학대	방임	2,057	1.805	0.513	.264
		학대	2,057	1.639	0.607	.369
매개 변수	공격성		2,057	1.931	0.543	.295
종속 변수	또래 관계	의사소통	2,057	1.844	0.505	.255
		신뢰	2,057	1.772	0.543	.296
		소외	2,057	1.948	0.658	.433
		교우관계	2,057	1.850	0.401	.161
		평균	2,057	1.853	0.385	.149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주요 상위변수들 간에 어떠한 상관정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방임은 학대, 또래 관계, 공격성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학대 역시 또래 관계, 공격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래

관계는 공격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번호	변수	방임	학대	또래 관계	공격성
1	방임	1			
2	학대	.269**	1		
3	또래 관계	-.490**	-.360**	1	
4	공격성	.210**	.312**	-.376**	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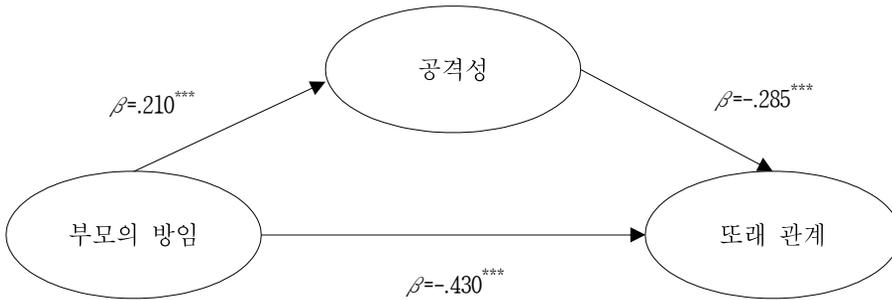
3. 부모의 방임과 또래 관계 간의 공격성의 매개 효과

1단계에서 부모의 방임은 공격성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0, p < .001$). 그리고 2단계에서 부모의 방임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490, p < .001$). 마지막 3단계에서 부모의 방임과 공격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공격성이 또래 관계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285, p < .001$), 부모의 방임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 = -.490$ 에서 $\beta = -.430$ 으로). 또한 부모의 방임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총효과가 $-.489$ 이고 직접효과는 $-.430$, 간접효과는 $-.05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공격성의 매개 효과는 $-.059$ 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8.22$ 로 Z 값의 절댓값이 1.96이상이므로 공격성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방임과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

분석 및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R^2	F	종속변인
	B	표준 오차					
1단계 방임	.223	.023	.210	9.760***	.044	95.259***	공격성
2단계 방임	-.368	.014	-.490	-25.501***	.240	650.290***	또래 관계
3단계 방임	-.323	.014	-.430	-23.085***	.318	478.971***	또래 관계
공격성	-.202	.013	-.285				

*** $p < .001$



[그림 2] 부모의 방임과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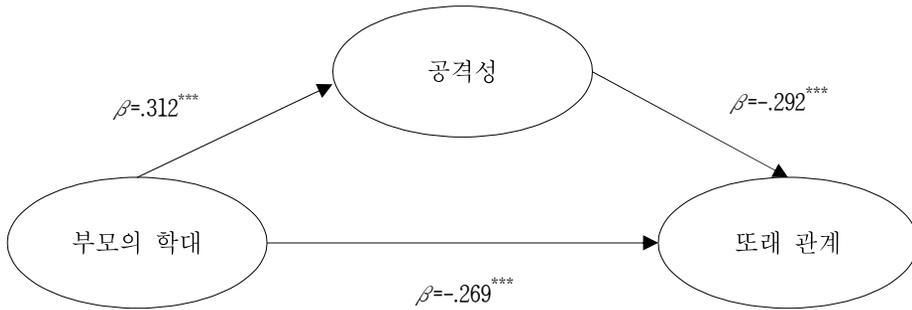
4. 부모의 학대와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

1단계에서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12$, $p<.001$). 그리고 2단계에서 부모의 학대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360$, $p<.001$). 마지막 3단계에서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공격성이 또래 관계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292$, $p<.001$), 부모의 학대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beta=-.360$ 에서 $\beta=-.269$ 로). 또한 부모의 학대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총효과가 $-.360$ 이고 직접효과는 $-.269$, 간접효과는 $-.09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공격성의 매개 효과는 $-.091$ 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10.05$ 로 Z 값의 절댓값이 1.96이상이므로 공격성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의 학대와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

분석 및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R ²	F	종속변인
	B	표준 오차					
1단계 학대	.279	.019	.312	14.904***	.098	222.143***	공격성
2단계 학대	-.229	.013	-.360	-17.517***	.130	306.855***	또래 관계
3단계 학대	-.171	.013	-.269	-13.022***	.207	267.438***	또래 관계
공격성	-.207	.015	-.292				

*** $p<.001$



[그림 3] 부모의 학대와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경험한 방임과 학대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격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학대와 청소년의 공격성, 또래 관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방임은 학대,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래 관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로부터 방임 및 학대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일수록 이들의 공격성 수준은 높았으며, 또래 관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적 양육방식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고, 타인에 대한 균형적 정서 조절이나 이해가 미숙함으로 인해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장관방, 김영미, 2014). 또한 김제엽, 정윤경(2007)이 발표한 부모의 폭력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한 자녀가 이를 학습하고 공격성이 높아져 학교폭력과 같은 폭력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부모가 방임이나 학대적 양육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신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우수정(2013)의 연구결과와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 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검증한 김소영(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또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학대보다 방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폭력행위보다 무관심이 청소년의 정서 및 또래 관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방임적 양육태도 아래서 자란 청소년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할 방법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어 또래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는 부모

의 방임이 필요한 욕구의 결핍 및 의사소통의 부재를 일으켜 인간관계의 기본적 소통 방식을 습득하지 못하게 만들고(정한나, 2017),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형성에 어려움을 주어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한다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우수정, 2013). 이와 더불어 부모의 방임·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에게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어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안형숙, 2013; 장한나, 2016), 부모로부터 학대 또는 방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윤혜미, 1997; 이승주, 남재성, 2016;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셋째,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부분매개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또래 관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공격성을 매개하여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모의 반복적인 폭력행위는 자녀로 하여금 공격적 행동을 두려워하게 만들면서도 강화 효과와 모델링을 제공하여 부모의 학대를 자녀가 모방하고 학습하게 되어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아지고, 이는 또래와의 갈등해결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김재철, 최지영, 2011; 안나, 2013; 이아영, 유서구, 2011). 그러므로 청소년이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소년의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공격성이 조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격성이 또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해 공격성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부모의 방임 및 학대라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자녀의 양육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이 줄어들다면 청소년의 또래 관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부정적인 또래 관계 증가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개입을 통해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청소년 시기에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 자녀의 부모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또래 괴롭힘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공격성을 줄이도록 돕는 상담과 폭력 예방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의 방임·학대 경험이 있는 자녀는 불안감, 분노,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폭력을 쉽게 학습하

게 되고 그 결과로 공격성을 내면화하게 되어 학교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애(2014)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한 자녀의 공격성 증가는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소년의 건강한 또래 관계는 부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격성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긍정적인 양육방식 아래에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과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부모의 양육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에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래부터의 집단 따돌림, 거부와 학교폭력 같은 부정적인 또래 문제로 인한 불안, 우울, 자해 등의 청소년의 적응 문제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상담 장면에서도 공격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되 가정환경까지 다룰 수 있는 세심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모로부터 방임·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에게 올바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또래 관계 간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역할을 살펴봤지만, 또래 관계의 구체적인 하위요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또래 애착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 등이 청소년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직접 수집된 자료가 아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어서 연구 결과를 중학교 전 학년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학생들, 즉 다른 학년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방임·학대가 각각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또래 관계에 대한 애착 및 의존이 높아지는 청소년이 건강한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 및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제안하는 한편, 이를 반영한 부모 상담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경하 (2017).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413-423.
- 김선숙 (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 김성아, 최진아(2011). 기초연구: 아동이 지각한 부, 모의 언어적 공격성 및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5(1), 17-28.
- 김소영 (2010). 청소년의 학대 경험, 갈등 해결전략 및 의사소통능력이 또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미 (2000).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또래 수용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0). 부모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1(4), 159-175.
- 김외열 (1988).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애의 매개 효과. **아동학회지**, 31(4), 111-124.
- 김유식, 이슬잎, 최재필 (2016). 중2학생의 신체매력, 또래 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20(1), 21-34.
- 김윤경, 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 김재엽, 정윤경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 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진숙 (2013).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덕숙 (2002). 부모의 학대 유형과 불안, 공격성 및 학교적응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2000). 부부갈등 및 아동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준, 성효정 (2014). 보호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에 관한 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85-114.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초기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 (2010).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차이. **한국가족복지학**, 28, 61-92.
- 배재현, 최보가 (2001).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9(1), 159-171.
- 법제처 법제정보과 (2014. 0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Newsletter?legNIPstSeq=803>에서 2014년 4월 인출.
- 서주현, 유안진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송유민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모(母)의 과보호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매개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2005). 또래 괴롭힘과 대인 간 행동 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 종단 연구: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63-279.
- 안동현 (2000). 아동 방임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 **한국아동권리학회**, 4(1), 7-26.
- 안나 (2013). 부모의 애착방임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 성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영, 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 21(3), 163-176.
- 안지연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61-284.
- 안형숙 (2013).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185-203.
- 안혜진 (2017). 선천성 심장병 영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행위 영향요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한나 (2016).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정 (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51(6), 583-590.
- 우희정 (2014).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능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 5(5), 5-21.
- 유민정 (2012).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 관계 간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의

- 매개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유윤아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0.
- 윤혜미 (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 자녀 관계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 95-120.
- 이아영, 유서구 (2011). 부부간 폭력의 노출정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패널자료(KYPS)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3(2), 225-245.
- 이동미 (2015).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 관계와 교사관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 이춘아 (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 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 이승주, 남재성 (2016). 아동 학대 경험에 따른 자존감 저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2(3), 1-26.
- 이영선, 이경남 (2004).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 환경 변인이 또래공격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13(5), 695-672.
- 이은주 (2003). 아동의 공격성, 또래 관계 및 집단 괴롭힘의 안정성. **초등교육연구**, 16(2), 283-300.
- 이충권, 양혜린 (2015). 청소년의 학대, 방임 경험이 정서문제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와 또래 관계간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61-285.
- 이충권, 양혜린 (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피해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1), 29-55.
- 임성택 (2002). 연구논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의 탐색. **청소년학연구**, 9(1), 221-246.
- 이정애 (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 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하, 정옥분 (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 관계와 사회적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63-175.
- 장관방, 김영미 (2014).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 효과. **공공정책연구**, 31(2), 101-130.
- 장춘옥 (2010). 또래 관계가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호

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정옥 (2007).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과 우울을 매개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정정화 (200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또래 관계의 질 및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한나 (2017).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또래에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혜순 (2010). 초등학교 학생이 경험한 부모의 체벌과 공격성, 또래 관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샘이 (2001).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집단별 관련 요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최승은 (2006). 친구 관계 유형에 따른 갈등 해결전략 및 친구관계 만족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임 (2012). 부모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자녀의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 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홍미, 김효진 (2007). 아동 학대 및 방임 실태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47-59.

홍소정 (2005). 청소년기 친구 관계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 부모의 경제 수준 및 양육 행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Anda, R. F., Felitti, V. J., Bremner, J. D., Walker, J. D., Whitfield, C., Perry, B. D., Dube, S. R., & Giles, W. H. (2006). The enduring effects of abuse and related adverse experiences in childhood.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6(3), 174-18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ndura, A., & Walters, R. H. (1959). *Adolescent aggression: A study of the influence of child-training practices and family interrelationships*. Oxford, England: Ronald.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Depanfilis, D. (2000). How do I determine if a child is neglected? In: H. Dubowitz & D. Depanfilis(Eds.), *Handbook for child protection practice* (pp. 121-126). NY: Sage Publications.
- Hartup, W. W. (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5), 336-341.
- Hartup, W. W. (1992).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3(60), 3-22.
- Isakson, K., & Jarvis, P. (1999).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during the transition into high school: A short term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1), 1-26.
- Kaplan, M. L., Asnis, G. M., Lipschitz, D. S., & Chorney, P. (1995). Suicidal behavior and abuse in psychiatric outpatients. *Comprehensive Psychiatry*, 36(3), 229-235.
- Katz, L. F., Wilson, B., & Gottman, J. M. (1999). *Meta-emotion philosophy and family adjustment: Making an emotional connection*. In M. J. Cox & J. Brooks-Gunn (Eds.), *The advances in family research series. Conflict and cohes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pp. 131-165).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Kent, J. (1976). A follow-up study of abused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2), 25- 31.

Kohut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Olweus, D. (198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Parker, J. G., & Asher, S. R. (1954).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Putnam, F. W. (2003). Ten-year research update review: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2*(3), 269-278.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547-641.

Rotter, J. B. (1954).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Shaffer, D. R. (2000). *Social personality development*(4th Ed).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공역 (2001).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Styron, T., & Janoff-Bulman, R. (1997). Childhood attachment and abuse: Long-term effects on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conflict resolution. *Child Abuse & Neglect, 21*(10), 1015-1023.

Wentzel, K. R. (1994). Relations of social goal pursuit to social acceptance, classroom behavior,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2), 173-182.

논문 접수: 2018년 8월 31일

논문 심사: 2018년 9월 25일

게재 승인: 2018년 10월 23일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buse and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Yu, Chang-Ho(SangMyung University)

Chang, Seok-Jin(SangMyung University)

Zhao, Long-fei(SangMyung University)

Jeon, Ji-In(SangMyung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find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buse and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pplied the data of wave 6 of the 2016 Korea Youth Panel Survey (KCYPS) provid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o analyze the cases of 2,057 third-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SPS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analysis results are mainly as follows. First, the more evident the negative rearing attitudes such as parental neglect or abuse, the more aggressive the adolescents are, and the worse their peer relationships would become. Besides, the impact of parental neglect is greater than that of parental abuse. Second, there ar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buse and the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Such results could be applied to develop appropriate solutions for dealing with negative rearing attitudes such as parental neglect or abuse, improving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nd reducing their aggression.

★ **Key words:** parental neglect, parental abuse, aggression, peer relationship, youth